

3월의 기도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8. 믿음의 성도들이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며, 창조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인,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신한림,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과 010-2726-****,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웃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만 카슨스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다가 50세도 안되는 나이에 희귀한 병에 걸려 잡지사를 관두고 웃음의 연구를 통해 그 질병에서 치료받고 미국 UCLA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학을 연구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담은 「질병의 해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록하기를 “웃음은 방탄조끼다. 총을 쏘도 풀리지 않는 방탄 조끼다. 어떠한 세균이나 병원,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웃음은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것 같아서 세균이나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약도 되고 빛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은 밝고 맑고 환하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으로 “기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억지로나 소리 내어 웃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슬픔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나가면 안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 마음의 풍량을 다스려 긍정적이게 하고 꿈과 믿음이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호주 시드니 크리스천 시티 교회



C3 교회는 찬양과 경배가 유명하며, 이 교회 찬양은 C3뮤직으로 제작 및 판매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C3교회의 필 프링글 담임목사는 “1977년 조용기 목사의 시드니 집회 이후 성령운동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이 왔다”고 말했다.
1977년 4월 조용기 목사는 시드니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조용기 목사의 집회에서 도전을 받은 후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 믿음과 기도,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성장을 시도했다. 이후 1982년 멜번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가 중심이 된 청년 그룹 'Youth Alive'이 탄생했고 이 조직은 순식간에 회원수가 4000명이 넘게 성장했다. 당시 이 조직의 회원이었던 청년들은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 호주교회를 움직이는 목회자들로 탄생했다. 브루스 힐스, 마크 코너, 로 드니 질 크리스트, 애슬리 에반스 목사 등이 모두 여기 출신이다. 이들은 호주 기독교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주역들이 됐다.

2000년 5월 조용기 목사는 '2000년 마지막 성 금요일'이란 C3의 초청으로 호주를 다시 방문해 성령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그래서 호주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은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호주는 인구가 1900여 만 명이며 4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6%에 불과하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1300개, 20만 여명의 성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회는 880개 교회, 11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다시 한번 호주 시드니 C3 교회를 방문해 2월 24,25일 양 일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대중집회를 인도할 계획이다. C3교회는 조목사의 이번 방문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옥스퍼드(Oxford st)가에 위치한 크리스천시티교회(Christian City Church). C자가 세 개라서 C3교회라고 부른다. 이 교회 담임 필 프링글 목사는 세계교회성장연구원(CGI)의 이사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제자이다. 화가이기도 한 필 프링글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에 감화 받은 뒤 호주에서 성령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C3교회는 현재 호주를 비롯한 64개국에 4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2020년까지 평균 성도 500명이 참석하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9세기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 나서도 극복하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평탄한 길에서도 실패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뗏목과 같이 강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모터보트와 같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란 엔진이 모터를 끌고 나가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뗏목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터보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없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8척 장신으로 전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떼입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렘은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실제 그렇게 젓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았

어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손만 대면 꿀과 젓이 흐르게 된다”라고 했고, 가나안의 8척 장신의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2명이 똑같이 출발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열 사람은 모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꿈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주셔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뉴욕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렘 차터 스쿨’은 뉴욕에서 가장 열악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소득수준으로 보면 미국 최하위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정은 80%가 편모, 편부 슬하에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사람이 80%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창립 7년 만에 뉴욕에서 최고로 높은 성과를 내는 공립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만든 주인공은 ‘세스 앤드류’인데,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학교가 뉴욕시 최우수 학교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어 원주민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인과 세계 10대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국이 오늘날 10대 강국이 된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자, 대학에 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5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그는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했는

데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와 교실마다 세계 유명한 대학의 깃발과 사진을 가득히 걸어 놓았습니다. 또 학생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좋은 대학들을 탐방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의 고교 졸업 성적 중 영어, 수학 과목의 합격자 비율이 명문 고등학교와 맞먹는 99%에서 9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은 1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값진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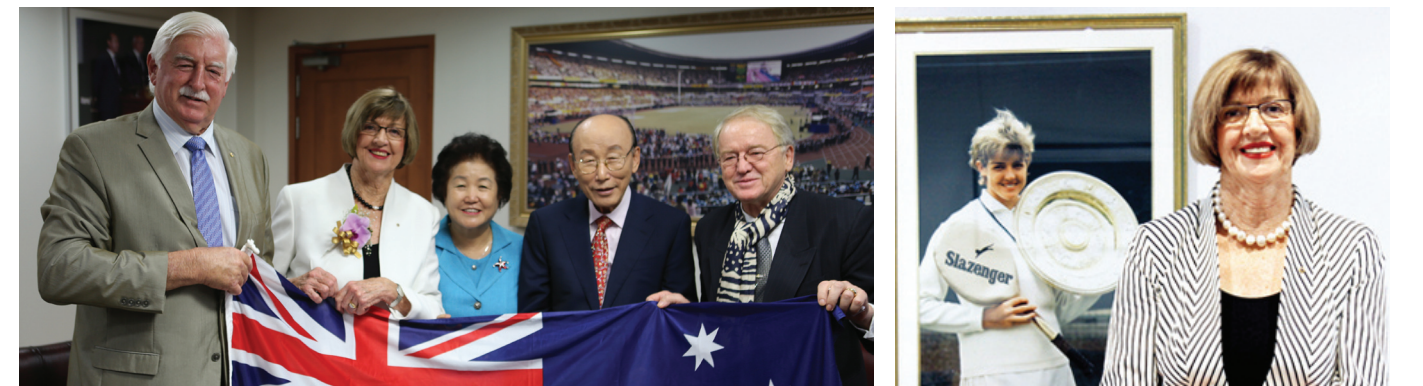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목표를 안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성결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어 장례 지낸 다음에도 부활한다는 모든 것에 목표가 세워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3. 생각, 꿈, 믿음, 창조적 선언

우리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도 모두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 일하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렛 코트 목사 (퍼스 빅토리 라이프 센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빅토리 라이프(Victory Life) 컨퍼런스’가 2016년 2월 23일 호주 서부 퍼스의 빅토리 라이프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용기 목사의 퍼스 방문은 지난 ‘2013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 이후 두 번째이다.

퍼스 최대 교회인 빅토리 라이프센터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게 될 이번 컨퍼런스는 호주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교계 리더들과 성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조용기 목사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

빅토리 라이프 센터의 담임 목사는 바로 ‘테니스의 여왕’으로 불렸던 마가렛 코트이다. 마가렛 코트 목사는 선수 시절 24개의 그랜드 슬램 단식 타이틀 획득, 복식과 혼합 복식을 포함한 그랜드 슬램 타이틀 총 62개, 4개 그랜드 슬램의 단식·복식·

혼합복식에서 모두 우승하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단연 역대 남녀 선수 중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

테니스 선수로서 은퇴한 후 그녀는 호주 퍼스에 있는 더 워드 오브 페이스 바이블 칼리지(The Word of Faith Bible College)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수년간 심장병과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나의 싸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심장 판막증을 성령을 통해 고침 받은 마가렛은 “사람들은 제가 남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나는 이후로 결코 약을 복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90년 마가렛 코트는 사회 구제를 통한 복음전파를 위하여 마가렛 코트 사역협회

를 퍼스에 세웠다. 사회활동과 구제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수백 명이 거듭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 다음해 오순절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마가렛 코트는 1995년 빅토리 라이프 센터를 건립했다. 교회는 사랑과 자비, 동정이 있는 ‘자비의 배 (mercy ship)’로 알려지게 됐다. 주일 예배 참석자 수는 평균 2000명 이상이고 퍼스 도시의 가장 크고 역동적인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또 2001년 5월 미국 오렐 로버츠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법학 분야) 학위를 받았다. 이는 목사로서 단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함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조용기 목사님의 책들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믿음과 사랑의 단순함을 배웠다”고 말하는 마가렛 코트 목사는 그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